항상 설해지고 있는 법문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㉑ 법화경상설(法華經常說)

이때 다른 세계에서 온 보살마하살들이 여덟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 있었다. 이들이 대중 가운데서 모두 일어나 합장하여 예배하고 부처님께 아뢰었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저희들이 부처님 멸도하신 후에, 사바세계에서 부지런히 정진하여 이 경전을 수호하여 읽고 외우고 써서 공양할 것을 허락하신다면, 마땅히 이 국토에서 널리 설하겠나이다."

그때, 부처님께서 여러 보살마하살에게 이르셨다.

"그만두어라, 선남자여, 굳이 그대들이 이 경전을 수호할 것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이 사바세계에는 6만 항하의 모래알 수만큼의 보살마하살들이 있고, 그 낱낱의 보살마하살마다 각각 6만 항하의 모래알 수의 권속들이 있느니라. 이들이 모두 내가 열반한 뒤에 능히 이 경전을 수호해 지니고 읽고 외우며 널리 설할 것이기 때문이니라."

부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 사바세계 삼천대천국토의 땅이 모두 진동하여 갈라지면서 한량없는 천만 억 보살마하살들이 동시에 솟아 올라왔다.

이 보살들의 몸은 다 금빛이었고, 32상을 갖추어 한없는 광명으로 빛났다. 이들은 모두 그전부터 사바세계의 아래 허공 가운데 있다가 모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고 아래로부터 올라온 것이었다.

이 수많은 보살들이 땅에서 솟아 나와서 각각 허공에 치솟은 칠보탑 안에 계신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계신 곳에 나아가 거기 두 세존께 머리를 숙여 예배하였다. 또 모든 보배 나무 밑의 사자좌에 앉으신 부처님들 계신 곳에 이르러서도 그와 같이 예배드린 후, 오른쪽으로 세 번 돌고 합장하고 공경하여 보살들의 찬탄하는 법대로 찬탄하고는 한쪽에 머물러 기쁜 마음으로 두 세존을 우러러보고 있었다.

이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처음 땅에서 솟아 올라와서 보살들의 찬탄하는 법대로 부처님을 찬탄할 때까지 50소겁이 걸렸다.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말없이 앉아 계시고, 모든 사중대중도 또한 잠잠히 있었는데 50소겁이 부처님의 신통한 힘으로 대중들에게는 한나절 같이 느껴졌다.

그때 사부대중은 또 부처님의 신통한 힘을 입어 모든 보살들이 한량없는 백천만억 국토의 허공에 가득한 것을 보게 되었다. 이 보살의 무리 속에 네 도사가 있었다. 첫째는 상행(上行)이요, 둘째는 무변행(無邊行)이요, 셋째는 정행(淨行), 넷째는 안립행(安立行)이었다. 이 네 명의 보살들이 그 무리 속에서 가장 으뜸가는 인도자 되었다. 이들이 대중 앞에 합장하고 석가모니불을 우러러보면서 문안의 인사를 여쭈었다.

"세존이시여, 병환 없으시며 괴로움도 없이 편안히 지내시나이까? 제도하셔야 할 사람들은 교화를 잘 받나이까? 세존을 피로하게 하지는 않나이까?"

'종지용출품'에 설해진 일부 내용이다. 매우 환상적인 장면이 연출된다. 땅이 진동하고 수많은 보살들이 솟아 올라왔다. 그리고 칠보탑 안의 다보여래와 석가여래가 계신 곳으로 나가 예배를 한다. 그전에 부처님은 이들이 부처님 열반 후에 〈법화경〉을 수호하고 독송하며 널리 설할 것이라고 하셨다. 여기에 숨어 있는 뜻이 법화경상설(法華經常說)이다. 〈법화경〉은 부처님의 구원성불과 더불어 미래제가 다하도록 언제나 항상 설해지고 있는 법문이라는 것이다. 이를 상설(常說)이라 한다. 이 말은 원래 〈화엄경〉에서 노사나불이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처소에 구애받지 않고 걸림 없이 자유자재하게 〈화엄경〉을 설한다는 뜻에서 나온 말이다. 특히 〈화엄경〉에서는 공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설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법화경〉도 의취(義趣)로 보면 마찬가지이지만 삼세(三世)를 통한 시간적인 상설을 강조하고 있는 셈이다. 보살들이 다보여래와 석가여래에게 예배를 드리고, 안부를 여쭈는 장면이 이색적이다. 일반 사람들이 상호 주고받는 인사말처럼 부처님 하시는 일이 별고 없이 무탈하시냐는 인사말이다. 〈법화경〉에서는 부처님과 부처님이 안부를 전하는 장면도 나온다. 여기에 고도의 상징적인 뜻이 함축된 법화삼매(法華三昧)와 법화참법(法華懺法)의 의미가 깃들어 있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지계는 깨달음과 곧바로 연결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㉑ 불성계(佛性戒)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나와 다르지 않은 평범한 사람들인 듯한데, 뉴스를 보면 사건과 사고가 끊이질 않는다. 어떤 경우에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만큼 끔찍한 사건이 보도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많은 이들이 분노할 때, 누군가 그 사람의 본성이 나와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수긍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나와 그 사람의 본성은 선한 것일까, 악한 것일까?

이런 의문에 대해 인도 대승불교에서는 학파마다 그 입장을 달리하지만, 동아시아불교에서는 여래장 계통 경전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수용한다. 모든 중생에게는 여래장 또는 불성이 있어서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설령 극악무도한 사람일지라도 그 본성은 부처와 다르지 않아서 성불할 수 있다고 설한다.

특히 중기 대승경전으로 분류되는 〈열반경(涅槃經)〉은 인도보다 중국에서 널리 유행했으며, 중국 불교계에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가장 먼저 한역된 것은 한인 승려인 법현(法顯)의 〈대반니원경〉 6권이다. 이어서 인도 출신 승려인 담무참에 의해 〈대반열반경〉 40권이 한역되었다. 이후에 두 번역본을 종합하여 다시 편집한 것이 혜엄 등의 〈대반열반경〉 36권이다. 통상 담무참의 번역본을 북본(北本)이라고 하며, 혜엄 등의 편집본을 남본(南本)이라고 한다. 어떤 본(本)에 의하든지, 이 경전의 핵심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경전의 보살계를 '불성계(佛性戒)'라고 부르기도 한다.

'여래성품(如來性品)'에서는 모든 중생이 불성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계를 지킨 후에야 볼 수 있으며, 불성을 봄으로써 아뇩다라삼먁삼보리를 이룰 수 있다고 설한다. 다시 말해 계를 지키는 것은 깨달음을 실현하는 것과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다. 또 '수명품(壽命品)'에서는 다른 초기 대승경전과 마찬가지로 십선도(十善道)를 설하며, '사자후보살품'에서는 십선법(十善法)을 수습(修習)할 것을 설한다. 한편 '성행품(聖行品)'에서는 범행(梵行)을 닦는 출가 보살을 재가 보살보다 우위에 두기도 한다.

이처럼 보살이 지녀야 할 계에 대한 설명이 여러 품에 산발적으로 보이지만, 주목할 만한 것은 '성행품'에 나오는 분류이다. 우선 보살계를 수세교계(受世教戒)와 득정법계(得正法戒)로 나눈다. 후자에 대해서는 보살이 이를 받으면 끝내 악을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 반면 전자에 대해서는 백사갈마(白四羯磨)를 한 연후에 얻는다고 하는데, 이는 수계 의식과 관계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 갈마는 합의로 어떤 사항을 결정할 때, 그 내용을 대중에게 한 번 알리고 세 번 가부(可否)를 묻는 절차이다. 이전에는 구족계를 주거나 무거운 죄를 처벌할 때에 행했는데, 이를 보살계에도 적용한 것이다.

다음으로 보살계를 성중계(性重戒)와 식세기혐계(息世譏嫌戒)로 나눈다. 전자는 본질적인 죄에 대한 계인 성계(性戒) 가운데서도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한 계이다. 구체적으로는 사중금계(四重禁戒), 즉 생명을 죽이는 것[殺生], 도둑질[偸盜], 음란한 일[婬事], 거짓말[妄語]을 금지한다. 후자는 행위 그 자체가 악은 아니지만, 세간에서 혐오하는 것을 없애기 위해 제정된 계이다. 다시 말해 후자는 차계(遮戒)라고 할 수 있으며, 비교적 가벼운 계인 경계(輕戒)이다. 구체적으로는 일상생활과 관련된 40가지 항목이며, 이는 당시 사회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가운데 눈여겨볼 만한 항목은 음식과 관련된 것인데, 이전에 금지되지 않았던 육식(肉食)과 오신채(五辛菜)가 여기에서는 금지되고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심재관 교수의 싯다르타 시대의 문화읽기

㉑ 삼베옷

옷감으로 이용된 대마

필자는 가끔씩 인도 동북부 시골마을의 길변에서 대마밭을 마주친 적이 있었는데, 주민들은 이것을 식용으로 이용하고 있었다. 동북부의 많은 지역은 대마 이용이 합법이지만 집 앞 텃밭에 기르고 있는 것이 특이했다. 말인즉, 유채처럼 어릴 때 잘라내어 데친 후에 볶아먹으면 꽤 찬거리로 좋다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필자의 경험치 안에서 대마는 늘 질기고 거친 식물이었다. 필자의 외가에는 아직 수십 년 전에 베어 말려놓은 대마줄기 다발이 아직 조금도 삭지 않은 채 헛간 시렁에 매달려있는데, 과거 어른들은 이 대마를 쪄서 말린 후 얇은 속껍질을 벗겨내 실을 짓고 삼베옷을 해 입었다. 한국이나 인도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 대마는 약용뿐 아니라 옷이나 끈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했다. 질긴 섬유질 때문에 서민들에게는 중요한 옷감의 재료였다. 인도에서도 대마가 수행자들의 옷감으로 등장했을 가능성은 매우 높다. 특히나 지금도 대마가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인도 빠뜨나 지역은 석가모니가 활약한 무대였기 때문에 당시에도 삼베는 꽤나 익숙했던 옷감이었을 것이다.

고대 인도에서 대마는 샤나(Śaṇa)라고 불렀다. 샤나는 아타르바(Atharva) 베다나 샤따빠타(Śathapatha) 브라흐마나 문헌과 같이 베다 문헌에서도 나타나는 것으로 미루어 꽤 일찍 사용되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를 방가(Bhaṅgā)라고도 불렀는데, 이는 초기 힌두교에서 주술이나 의례용으로 사용할 때 이렇게 부르는 경향이 있었다. 현재에도 인도에서 '방가' 혹은 '방'이라고 하면 환각적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후대에는 샤나라고 부르는 경향이 더 많았지만, 혹자는 샤나와 방가가 서로 다른 마(痲)의 종류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다. 베다시대에는 대마로 옷을 지어 입기보다는 주술적인 용도로 사용한 흔적이 나타난다. 즉 대마끈에 기름을 묻혀 적을 생포하기 위한 주술적 의례에 사용했다. 그렇지만 옷을 위한 용도로 대마를 길렀던 기록도 존재한다. 인도의 서사시 마하바라따에는 옷을 만들기 위해 대마를 키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라마야나에는 대마로 만든 옷, 샤나발깔라(Śaṇavalkala)가 등장한다.

불교문헌에서는 삼베옷을 '샤나로 짠 직물'이라는 뜻으로 사니야(Saṇiya 또는 샤니야)라고 부르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시하나다숫따(Sīhanādasutta)에는 고행자들이 입는 옷의 한 가지로 이 샤나로 짠 옷감을 열거하고 있다. 또한 샤나와 다른 실을 섞어서 만든 합성섬유의 옷들도 등장한다. 고대 바라문 학생들의 옷은 이 삼베옷을 입어야하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미루어 종교를 떠나서 모든 고대 인도인들에게 익숙한 옷감이었다는 것은 분명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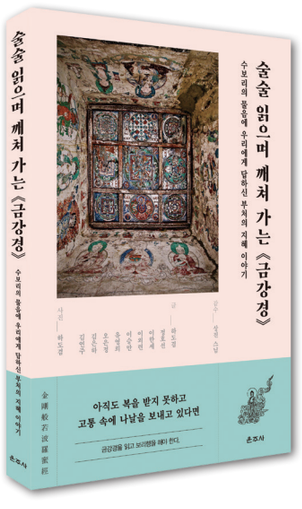
그런데, 이런 옷감은 아마도 현재 우리가 입는 삼베옷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그 삼베옷 제작공정의 번거로움과 수고를 생각하면 고행자들에게는 당연히 사치스러운 것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대마를 쪄서 다시 말리고 불리기를 반복한 다음 속껍질을 터서 곱게 실을 짓고 길쌈을 하는 과정을 거쳤을지 의문이다. 아마도 대마의 속껍질을 거칠게 타개서 그대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다. 고행으로 유명한 자이나(Jaina)교의 문헌에서도 이 옷감의 사용을 인정했을 정도면 그렇게 사치스럽게 제작된 옷감이 아닐 수 있다. 당시의 삼베옷은 현재와는 많이 다른 질감의 것이었을 수도 있다. 자이나교 승려들 사이에서도 이 샤니야가 사용되었던 것이다. 대마를 키웠던 농부들은 이 샤나를 이용해 도띠(dhoṭī- 한 장의 천으로 된 남성하의)를 짜서 입었다고 하는데, 당시 수행자들이나 일반인들 모두 이 옷감을 사용할 정도로 대중적이며 널리 사용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대마와 비슷한 식물이 함께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흔히 황마(黃痲)라는 부르는 것이 그것이다. 이것은 '빳(Pāṭ)'이라 불렀는데 이를 이용해 짠 옷감이나 기타 섬유직물을 '빳따'로 불렀다. 아마도 고급면직물이나 실크 등도 사용되었을 것이나 이것들이 대중화되기 전까지 이러한 옷감들이 더 널리 유통되고 있었을 것이다.

〈상지대 교양대학 교수〉

불자와 이웃종교인들이 함께 만든 금강경!

술술 읽으며 깨쳐 가는 금강경



복잡한 해설 없이 경문을 읽어 가며
이해하고 깨우치는 특별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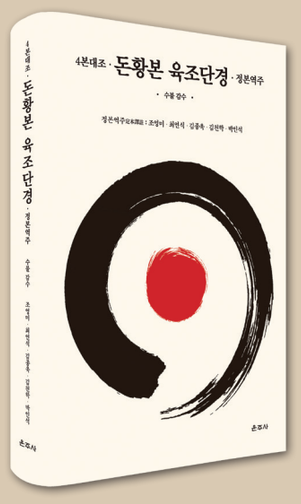
- 9명의 역자가 집단지성을 발휘하여, 세존과 수보리 장자의 대화를 현대적인 언어로, 우리말의 맛과 멋을 살려 번역하였다.
- 독자들의 눈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히말라야 문화권의 풍광과 삶의 모습을 담은 다양한 사진을 함께 수록하였다.

하도겸 정호선 이한세 이외련 이승만 유영희 오은정 김은하 김연주 저
신국판 변형/무선/264쪽/값 16,000원

육조혜능의 본음에 가깝게 살아난 육조단경!

4본대조 돈황본 육조단경 정본역주

『육조단경』의 원음을 살리기 위해
정본화定本化한 세계 최초의 작업!



- 육조단경의 다양한 판본 중 가장 고층에 속하는 '돈황본'의 4종의 이본을 철저히 교감하여 원텍스트에 가장 가깝게 재구성하였다!
- 한문학, 불교학, 사학, 철학 등 각 분야 전문가 5명이 참여하고, 수불스님이 감수를 맡아 완성도를 높였다.

조영미 최연식 김종욱 김천학 박인석 정본역주/수불 감수
국판 변형/양장/344쪽/값 17,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시 성북구 동소문로 67-1 성심빌딩 3층 ● 전화 (02) 926-8361 ● 팩스 0505-115-8361 ● 주문 (02) 3672-7181 ● 다음카페:도서출판 운주사 www.cafe.daum.net/unjubooks